

아니 벌써 '방한산성'?

유통업계, 겨울맞이 상품 경쟁 돌입

'포켓몬 vs 미니언즈' 편의점 호빵 전쟁 가법고 물빨래 가능 워셔블 전기요 인기 가을 짝아지자 온열·방한용품 출시 빨라



유통업계가 이른 겨울맞이로 분주하다. 올 겨울 라니나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고 실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감하자 유통업계의 이른 겨울이 야기가 시작될 모습이다.

● 편의점의 뜨거운 호빵전쟁

편의점 업계에서는 올 겨울 뜨거운 호빵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저마다 개성있는 캐릭터나 유명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맛으로 어필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포켓몬 캐릭터 호빵' 시리즈를 내놓았다. 피카츄, 잠만보, 몬스터볼 호빵 등으로 구성됐다. GS25는 '미니언즈 호빵'으로 응수했다. 겨울 시즌에 맞춰 헬러윈데이, 크리스마스 버전 등 다양한 테마로 선보일 예정이다. 양념치킨, 고기만두, 새우만두 맛 등 종류도 다채롭다.

CU는 간판 모델인 백종원 요리연구가가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백종원 전빵'을 선보였다. 매콤불고기, 고추잡채, 고기부추, 볶음김치 맛 등으로 구성됐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호빵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캐릭



예년보다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유통업계의 겨울맞이가 한창이다. 세븐일레븐의 '포켓몬 캐릭터 호빵', GS25의 '미니언즈 호빵', 이마트의 '밀컨백션히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GS25·이마트

터 협업 등 색다른 재미 요소와 가치를 담은 이색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고객에게 친숙한 캐릭터 및 모델을 활용한 이색 겨울 간식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고 했다.

● 1인 가구 겨냥 특화 겨울상품 인기

추워진 날씨 탓에 온열·방한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워셔블(빨아 쓰는) 전기요'가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보관이 쉽고 가벼운 게 매력 포인트다. G마켓이 최근 한 달(9월19일~10월18일)간 '워셔블 전기요'의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1배(2011%) 증가한 것

로 나타났다. 보관성이 좋고 물빨래가 가능해 위생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라는 게 G마켓 측 설명이다.

방한용품의 대표주자 핫팩의 판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24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핫팩 매출이 일주일 새 3배가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런 추위를 맞아 고객 수요가 많은 핫팩을 계산대 인근에 전면 배치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PB상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북유럽 히터 업체 밀과 손잡고 북유럽식 전기히터 '밀컨백션 히터'를 출시했다. 열선가열 방식의 일반 히터와 달리 내부에서 가



열한 열을 대류시켜 온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접 열에 노출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저온 화상 등의 우려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꼽힌다.

롯데마트는 보온성이 뛰어난 '울트라 히트' 내의 시리즈를 선보였다. 체내의 열을 피부로 전달하고 몸에서 발산된 수분을 흡수 및 건조시키는 흡습발열 소재가 특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동절기 상품을 준비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온열·방한용품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4일

코스피지수	2490.49	▲	+0.44
코스닥지수	687.21	▲	+11.35
日 닛케이 지수	2만1805.17	▲	+108.52
중 상하이 종합	3388.25	▲	+7.5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6	▲	+0.03
환율 (원·달러)	1129.0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461.64	▲	+82.13

오늘의 얼굴

김동연 부총리 "인위적 경기 부양 없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에서 DTI 전국 확대가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대책에서 빠졌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다듯 3%대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수도권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회복에 대해 "최근 수출 호조나 투자심리 회복세로 3%대 성장의 경기가 상당히 견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패밀리카의 글로벌 강자'가 한국 온다

혼다, '5세대 올 뉴 오딧세이' 출시 안전 제어 시스템 '혼다 센싱' 적용



혼다코리아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5세대 올 뉴 오딧세이를 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스트 셀링 반열에 오른 인기 미니밴이다.

가족을 위한 차량답게 새로 적용한 편의 사양들이 먼저 눈에 띈다. 2,3열 탑승 공간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캐빈 위치', 1열 승객의 목소리를 2,3열의 스피커 및 헤드폰으로 들려주는 '캐빈 토크'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운전 중인 부모가 뒷좌석의 아이들과 쉽게 소통하며 케어

할 수 있다.

전후는 물론 좌우 이동까지 가능한 매직 슬라이드 시트 2열에 등급 최초로 적용했다. 전후좌우로 이동되는 덕분에 3열 승객의 승하차도 더 쉬워졌다.

트렁크 측면에는 진공청소기를 탑재해 야외 활동 후 더러워진 실내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핸즈프리 개폐 기능이 포함된 파워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어 보다 편리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다.

가족을 위한 차량인 만큼 안전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첨단 안전 기술 패키자인 혼다 센싱(Honda Sensing)을 적용했다. 차간거리 유지, 차선 유지, 사고 방지,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적극적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돕는다. 미국 고속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 '올 뉴 오딧세이'는 안전과 편의 사양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사진제공 | 혼다코리아

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는 최고 등급인 'Good'을 획득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 3.5L 직분사 VCM엔진을 장착, 최대출력 284마력과 최대토크 36.2kg.m의 성능을 자랑한다. 독자 개발한 전자 제

어식 10단 자동변속기가 미니밴 사상 최초로 탑재해 복합 9.2km/L, 도심 7.9km/L, 고속 11.5km/L의 연비를 실현했다. 가격은 5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비즈 TALK TALK

● "정부가 임기 전 사임 요구, 정책 방향과 생각도 달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24일 기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열린 무역협회 이사회에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 "친인척 채용 의혹 사실이면 이들은 정규직 대상자에서 제외"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앞두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친인척과 지인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 "1mm 깨알 안내는 고객 영리대상으로만 취급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 경쟁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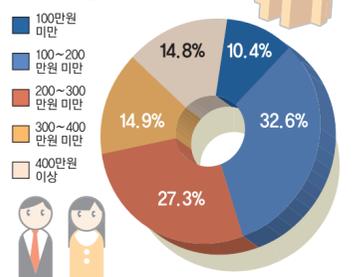
데이터 경제

월급쟁이 43%, 한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77만9000명 중 43%는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채 못 번는 근로자도 10.4%에 달했다. ▲100만~200만원 미만 32.6% ▲200만~300만원 미만 27.3% ▲300만~400만원 미만 14.9% ▲400만원 이상 14.8%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44.0%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을 채 못 번는 비중까지 합하면 80.8%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100만원 미만인 23.3%였고, 100만~200만원 미만까지 합하면 77.7%나 됐다. 반대로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비중이 각각 35.0%, 34.6%였다.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편집 | 신하늬 기자

은행이 만든 맞춤형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

KB국민은행 24일 브랜드 론칭 매물검색에서 금융까지 원스톱



'KB부동산 리브온' 광고 모델 서정훈,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 윤성희 마포박사공인중개사대표,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왼쪽 네번째부터)가 'KB부동산 리브온'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KB부동산 리브온(LiivON)'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를 열고 "5월 출시한 부동산금융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은 매물검색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종합 부동산 플랫폼이다.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매물, 시세, 분양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 직접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도 표시된다. 매월 납입 월부금도 계산 가능해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

를 위해 보유 예산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신혼집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설계와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위한 전용관에서는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부동산 서비스는 고객의 일상과 밀접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KB금융이 잘하는 맞춤형 상품

과 전문성을 살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고객에게 희망을 전하고 부동산업체와 상생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 모델로는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정훈이 발탁됐다. KB국민은행 측은 "부동산 투자 귀재로 통하는 서정훈의 이미지를 고려해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국순당, '2017년 햅쌀로 빛은 첫술' 첫 선

국순당이 올해 수확한 햅쌀로 빛은 프리미엄 생막걸리인 '2017년 햅쌀로 빛은 첫술'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올해 수확한 경북 안동 햅쌀을 사용해 탁주 햅쌀(HACCP) 인증을 받은 강원도 횡성공장에서 빚었다. 생막걸리 특유의 탄산감이 살아있으며 올해 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빚어 일반 생 막걸리보다 부드럽고 신선한 쌀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총 4800병만 생산하며 11월 14일까지만 판매한다. 알코올 도수 7도, 용량은 750ml, 소비자 판매가는 4200원. 원성열 기자

롯데월드타워, 전기차 주차 및 충전 무료

롯데물산은 2018년 6월30일까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포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4시간 동안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롯데월드타워에는 올해 설치한 118개의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해 총 124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특히 10월에는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인 '테슬라 슈퍼차저' 6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롯데물산은 저공해 1종 스티커 부착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4시간 무료 충전과 주차를 지원한다. 충전을 원하는 고객들은 주차 지원 직원에게 이용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충전소는 지하 2~4층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 김재범 기자